

한마음한몸



2017 여름호 | vol. 34

One-Body One-Spirit Magazine Summer

부룬디와 케냐, 희망이 비추는 곳



한마음한몸

기획특집

- 3 부룬디와 케냐, 희망이 비추는 곳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 8 부룬디 학교, 이렇게 완공됐어요!

나누고 싶은 글

- 10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
11 민들레 홀씨 되어

현장 속으로

- 14 명동성당 나눔 1번지, 가톨릭회관 신관에서 만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16 봉사과 나눔의 삶을 꿈꾸다
17 나눔으로 성장하는 가정을 꿈꾸며

나눔가게·나눔기업

- 18 사회적기업 대신 나눔 가득한 사회적가게로

20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22 한마음한몸 새 소식



커버스토리

“기혜루 초등학교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한 시간 넘게 오르내리던 등교길이 짧아졌습니다. 꿈을 생각할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고맙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지내셨던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생명존중과 나눔실천이라는 대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헌혈, 헌안운동을 벌이며 교회와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홈페이지(www.obo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통권 34호 | 2017년 여름호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7년 여름

편집·디자인 슬로워크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T 02)727-2288

E obos@catholic.or.kr

 www.obo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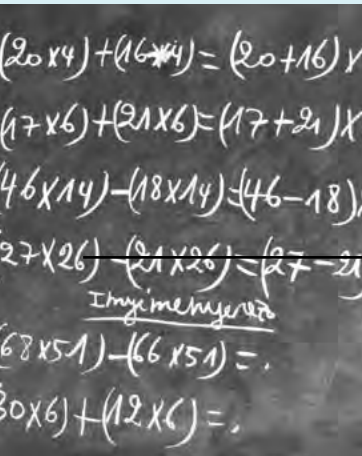
 facebook.com/oboscorea

 onebody_onespirit



기획특집

부룬디와 케냐, 희망이 비추는 곳



국제협력팀 김운주^{루시아} 님 인터뷰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나와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장거리 나눔을 지속할까요?
전해 들은 소식,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삶을 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11박 12일에 걸쳐 아프리카
대륙의 부룬디, 케냐에 현장 모니터링을 다녀온 본부
김운주 대리와 함께 그 희망을 조금 엿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한마음한몸 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한몸 운동본부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긴급구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운주 루시아라고 합니다. 개발협력으로는 아프리카의 케냐와 부룬디, 그리고 긴급구호로는 아이티와 에콰도르, 네팔 등 재난이 발생한 국가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룬디와 케냐에 다녀오셨어요. 이런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본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에서 현지 파트너 기관들과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빈곤, 기후변화 등의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 후원자 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이 투명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후원자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20시간이 넘는 여정 끝에 도착한 부룬디에서 기헤루 초등학교를 방문하셨죠. 여기선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정리하자면 총 세 가지 정도를 파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2014년에 시작되어 마무리 단계에 온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었는지를 봤고요. 실제로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직접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짓기 프로젝트 자체에 관한 평가 내용이 궁금합니다.

우선 학교가 잘 지어졌는지, 학교를 지으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실제로 잘 사용됐는지 등에 관한 현지 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학교를 지어주면 시 당국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니다.

약속은 잘 지켜졌나요?

네, 시 당국에서 적극 협조해주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운영비나 건물관리 비용, 교사 인건비, 교재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수업 진행도 잘 되고 있었고요.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우선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기헤루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는 학교에 가려면 한 시간 이상을 걸어야 했고, 가더라도 워낙 먼 곳에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작은 교실에 비집고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15분만 걸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어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환한 표정과 행복한 모습을 후원자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교사분들이나 다른 어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학교로 인해 일자리를 얻게 된 교사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거의 지역주민이고 아이들과 있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셨어요. 지난 3월부터는 정부에서 파견한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셨더라고요. 현재 교사는 총 8분이고요. 인터뷰한 분 중에는 이제 막 돌 지난 아이를 안고 계신 분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임신하기 전인 2014년에 벽돌 나르거나 시멘트 옮기기 등 학교 공사작업 등에 함께하여 생계에 많이 도움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학부모, 주민들, 봉당 신부님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어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환한 표정과 행복한 모습을 후원자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

밝은 표정의 기헤루 초등학교 아이들



케냐에서는 주로 SILC 그룹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SILC가 뭔가요?

SILC는 ‘Savings and Internal Lending Communities’, 우리 말로는 소액대출공동체입니다. 영세한 농민이나 가난한 주민들이 30명 정도씩 그룹을 구성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서로 저축하고, 이후 내가 필요한 양의 돈을 대출받아 생계유지를 위한 종잣돈으로 삼을 수 있는 경제자력화 조직이에요. 2009년부터 케냐의 메루(Meru)라는 시골지역에 이 그룹을 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한동안 메루지역의 가뭄피해가 심해서 중단되었다가 2015년부터 다시 3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네요.

네, 검토를 거치겠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SILC 그룹은 단순한 경제자력화 뿐만 아니라 케냐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기도 하거든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환경친화적 농업을 하면 SILC를 기반으로 몇 개 그룹을 모아 교육도 하고, 그중 친환경 농업에 성공적인 그룹은 다른 그룹과 공유하며 그 내용을 교류하기도 합니다. 함께 수자원을 보호하는 활동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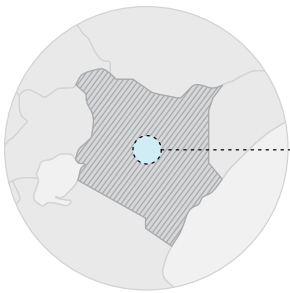
김윤주 루시아 님

“많은 분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둘러앉아 논의하고 있는 SILC 그룹원들의 모습



케냐 모니터링 여정 지도



케냐 (Kenya)



- 1**

5월 22일 오전
지역: MERU TOWN
 숙소 및 메루카리타스(현지 사업수행기관) 사무실에서 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및 논의 진행
- 2**

5월 22일 오후
지역: BUURI
 미차카 중학교(Michaka Secondary School) 방문. 학교에 묘목을 지원하여 환경보호 교육 및 체험활동 실시. 어린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인식제고 활동
- 3**

5월 22일 오후
지역: BUURI > Maruri
 Maruri SILC 그룹 방문. SILC 그룹 성공사례인 퇴임 교사 부부(Rebecca) 방문, 수혜자 인터뷰 실시
- 4**

5월 23일 오전
지역: BUURI
 수자원 보호시설 2곳(Loire Spring, Karwarera Catchment) 방문. 울타리 설치, 식목 등을 통해 급수시설이 지속가능하도록 보호, 관리하는 곳. 현지관리자(SILC 그룹원) 인터뷰
- 5**

5월 23일 오전
지역: BUURI
 수자원 보호시설 1곳(MAILI NANE) 방문 및 관리자 인터뷰. 가뭄피해가 큰 지역 방문
- 6**

5월 23일 오후
지역: BUURI
 무꼬로니아씨(Mrs. Mukoronias)의 가정 방문(보존농업 적용사례). 같은 작물을 가급적이면 적은 물로, 환경친화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보존농업 관련 교육 이수자.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여 가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이웃보다 많은 작물을 수확하고 있음을 확인
- 7**

5월 24일 오전
지역: IGEMBE NORTH > Kangeta
 SILC 그룹에서 운영 중인 재봉학교(Tailoring School) 방문. SILC 그룹이 모은 돈으로 재봉학교를 열어 장애아동이나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 그밖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직업기술교육을 실시
- 8**

5월 24일 오전
지역: TIGANIA EAST > Tharichia-Muriri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씨앗과 묘목을 지원받은 SILC 그룹 방문. 실제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고 내다 팔기도 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
- 9**

5월 24일 오후
지역: BUURI > Kiirua
 SILC 그룹 실제모임 참관
- 10**

5월 25일 오전
지역: MERU TOWN
 메루카리타스 사무실, 모니터링 현지평가회의 진행

SILC 그룹을 주축으로 하는

수자원 보호활동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활동인가요?

케냐를 비롯한 동아프리카는 최근 반세기 만에 찾아온 최악의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때문에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통 가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반경 4-5km 정도를 걸어야만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족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기도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물이 필요한데 물을 얻을 곳이 별로 없어요. 간혹 지하수를 끌어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있는데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다, 물을 길어가는 주민들과 가축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프가 깨져서 물이 새거나 오염되면 깨끗한 물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급수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나무를 심어서 수자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현지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사실 이번에 가장 힘들었던 건 현지 분들이 끼니를 제때 잘 안 챙겨 드시는 부분이었어요. 하루는 오전 8시에 밥을 먹고 출발했는데 밤 10시에 두 번째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 세 끼를 챙겨먹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현지에서는 오히려 하루에 1~2끼를 먹는 것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배고파도 배고픈 내색을 하기 미안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니다. (웃음)

꼭 물질이 아니어도, 내가 이 나라에 이것 하나만 줄 수 있다면 뭘 주고 싶은가요?

마음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정부로부터도 워낙 소외된 지역이라 외부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다른 어딘가에도 많겠다, 이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질적인 걸 준다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관심과 마음을 꾸준히 줄 수 있다면 언젠가는 지금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열 번, 백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주신 후원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케냐의 주민들이 물탱크에서 물을 받아서 운반하는 모습



수자원 보호를 위해 설치한 울타리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부룬디 학교,
이렇게 완공됐어요!

2017년 5월, 본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룬디 기헤루 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학교가 생긴 아이들의 표정은 아주 밝았고 현지의 학부모님, 선생님, 신부님들도 후원자분들께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면을 빌어 부룬디 프로젝트에 관한 요약과 본부가 담은 현장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내전으로 인해 초등학교, 위생시설 등 기초적인 사회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부룬디. 본부는 지구촌 곳곳의 아이들이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향한 곳은 부룬디 마캄바의 기헤루 마을입니다. 학교가 생기기 전, 아이들은 등교하기 위해 한 시간 이상을 걸어야 했고, 도착해서도 비좁은 교실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학교와 같은 시설은 갖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설이 실제로 잘 활용/관리되고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받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학교 시설의 활용도는 높았고 선생님들도 열정적이었으며, 시 당국에서 종전에 약속한대로 건물 관리비의 등 운영비, 교사 인건비, 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가능했던 건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후원해주신 덕분입니다.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 vol. 1	프로젝트 기간	후원금
	2014년 12월 21일 ~ 2015년 2월 28일(10주)	총 136,942,187원
	프로젝트 목표	후원자 수
	기헤루 초등학교에 다음 내역을 설치	총 591명
	 교실 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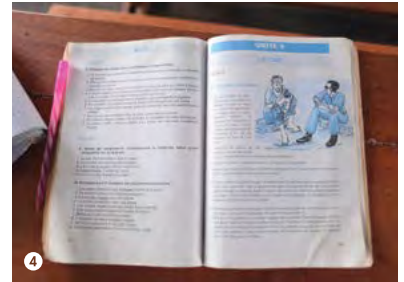
부룬디 학교짓기 프로젝트 vol. 2	프로젝트 기간	후원금
	2015년 12월 19일 ~ 2016년 2월 29일(10주)	총 168,456,062원
	프로젝트 목표	후원자 수
	기헤루 초등학교에 다음 내역을 설치	총 703명
	 교실 3개	 화장실 2개
	 교무실	 놀이터
	 빗물수집장치	 책걸상



1



2



4



3



5



6

① 탁 트인 운동장 뒤로 지어진 교실들이 보입니다.

②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③ 한 학급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④ 아이들이 공부하는 프랑스어 교재도 보입니다.

⑤ 전엔 볼 수 없었던 평평한 운동장에서 배구경기가 한창입니다.

⑥ 교실 뒤편에 마련된 빗물저장장치입니다. 현재 가뭄이 심해 저장할 물이 매우 부족하지만, 곧 비가 충분히 내리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본부는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이웃을 사려 깊게 살피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 국제협력팀 02-727-2265 www.obos.or.kr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



가톨릭신문사
박명호 기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했다.
이유는? 모르겠다. 아마도 9살쯤 됐던
것 같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어느 날 밤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밤 10시는 족히 됐던 것 같다. 실컷
골목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와서
허겁지겁 밥을 먹고, TV를 채 10분도
못 보다가 잠에 떨어졌다. 두어 시간
깊아떨어졌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갑자기 견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시작은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잠을 깬 내게서 조금
떨어져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가 만약
이 세상에 없다면? 두려움에 진저리를
치던 나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놀란
어머니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디가 아파서 그런가 하며 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나, 아이가 우는 이유를
짐작도 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밤을
꼬박 새웠다.

그날 밤 두려움의 대상이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내 존재의
부재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오만가지 잡생각을
하기 시작하던 청소년기, 내 진지하고
유일한 고민은 '죽음'이었다.

동서양의 많은 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궁금했고, 치기 어린 철학
서적 탐독이 시작됐다. 당연하게도,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철부지는
철학서적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여전히
'죽음'은 신비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한 나는
종교에 귀의했다. 알 수 없는 삶,
두렵기만 하던 죽음에 대한 나름의
해법이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앙 역시 투철한
노력,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결단의
연속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일회적인
해법은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지금의 결론이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존재의 부재에
대한 공포는 어쩌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생명에 대한 예민함을
키워준 듯하다. 비록 불교도는
아니지만, 살인을 포함해 "살생하지
말 것"을 가장 엄한 계율로 가르치는
불교의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과민한
두려움을 지닌 내게 유난히 절절했다.

우습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가끔
여름밤 꼭꼭 닫은 방문 틈으로 어느새
비집고 들어온 모기 한 마리를
때려잡을 때도 불쑥, 생뚱맞게 드는
생각이 있다. "애도 생명인데..." 작은
모기 한 마리, 악의를 갖고 내 피를
빠는 것도 아니고, 피 빨아 사는 것이
그 본질이니, 어찌 그를 탓할 것인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다리를 타고
오르는 개미 한 마리, 손가락으로 꼭 눌러
죽이려다가도 멈칫한다. 내 생명과 우주를
바꿀 수 없듯, 이 녀석에게도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저만의 생명이 있는데...
어찌 보면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더 예민하게 하기도
하는 듯하다. 적어도 내게는.

오늘날 생명의 존엄성은 어느 때보다도
존중 받지 못하는 듯하다. 어쩌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잃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명의 끝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은 역으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관한, 생명에 대한
예민함을 키워준다. 죽음이 두렵다면,
어찌 생명을 소홀히 여길 것인가?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불러올
것이기엔 두렵지 않았던 것이다. 죽음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죽음은 과연
안락한 도피처일까? 현재 삶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처럼 보이는 탓일까? 자기
생명을 끊어낼 정도로 절박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까?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요구되는 때다. 죽음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은 생명을 업신여긴다는 뜻이다. 나의
죽음은 물론이요, 다른 이들의 죽음,
자연과 미미해 보이는 동물과 식물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예민함이
아쉬운 시대이다.

나누고 싶은 글

민들레 홀씨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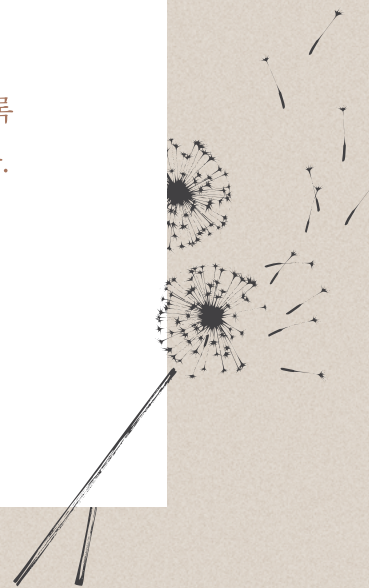
도O(익명)

당신이 있는 그곳은

언제나 따뜻하기를 바라며...

•

본 수기는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를 직면하고
생명존중사회를 이루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최한 ‘자살 사별자 수기
공모전’에 응모된 작품입니다. 이 수기의 나눔이
자살 유가족들의 슬픔을 보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밑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기를 게재할 수 있게 해주신 중앙자살예방센터,
수기 응모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 앞뜰에 민들레꽃이 어여쁘게 피어 있다. 무엇이 아쉬웠는지 꽃씨들이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가을바람에 멀리멀리 하늘로 날아간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 푸르고 푸르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 것이 얼마만인가. 단순한 풍경마저 감사하다. 노란 은행잎이 쌓여가고 그 잎 주워 햇살에 비추니 하늘이 노오랗다.

2011년, 119 구급대원의 급한 전화를 받고 하던 일을 내던지고 뛰어가는데, 발이 구름 속에 빠진 듯 휘청거렸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고 눈앞이 노래져 보이는 것이 없었다.

딸아이는 구급차에 실려 있었고, 가는 도중에 숨이 멈춰 전기충격기로 몇 번을 시도했다. 가까스로 숨이 돌아오다 다시 멈추고 다시 충격기를 쓰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미 시간은 경과되었고 산소공급이 안 되어 뇌가 손상된 채 기계로 가쁜 숨만 쉬고 있었다. 가까운 성당에 가서 성모상 앞에 무릎 꿇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머리에 피가 나도록 간절히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다.

자살을 시도한 날부터 딸은 말 한마디 못하고 누구 하나 알아보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삶도 멈춰버렸다. 온통 딸에게 매달린 안사람은 본인 몸도 아픈데 고통 있는 자신보다 딸의 엄마로서 무섭게 변했다.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 없다고 해도 엄마로서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고 의식이 돌아오리라 믿으며 좁은 병실 간이침대에서 자면서 딸과 함께 생활했다.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주사기로 미음을 먹이고 수시로 몸의 위치를 바꿔주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온갖 정성으로 보살폈다.

나는 일을 하다가 안사람이 병원 치료 가는 날이면 가서 딸을 보살피다 또 일을 나가고 그러기를 3년. 병원에 있으면서 딸은 시간이 갈수록 수척하게 말라갔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딸은 마지막으로 눈물 한줄기를 흘리더니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 화장터에서 한 줌 재로 돌아온 딸.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버리다니. 더 흘려야 할 눈물도 말라버리고 하늘마저 원망스러워 그대로 주저앉아 넋을 놓아버렸다.

노래도 잘해 큰 상도 받고, 웃을 때 들어가는 보조개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더구나 아픈 엄마를 위해 고3 때 자기 장기 일부도 떼어준 효자였는데. 거부반응으로 수술이 잘 안 되어 힘들 때, 가족끼리 서로 부둥켜안고 이겨내자고 다짐했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내려와 가까운 곳의 직장을 다니며 가족 곁에 있던 딸이었다. 그런 녀석이 갑자기 그런 시도를 하다니. 유서 한 장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럴 때 부모라는 사람이 뭘하고 있었던 말인가?

딸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몸서리치며 통곡의 날들을 보냈다.

병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볼 수 없으니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딸이 가버린 후 남은 가족끼리 상처를 다독겨야 하는데, 마치 본인들의 상처가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지면서 서로 말도 하지 못해 대화가 없어졌다. 말도, 웃음도 잃어버렸다.

먹는 것, 자는 것조차 죄스러웠고 그저 각자 할 일만 하고 유령처럼 지냈다. 딸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는 낚싯대에 찾아가 몇 시간이고 그 앞에서 바보처럼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갈수록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에서 한 시간을 기다려 2~3분 상담하고 약을 받아오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늘 허전하고 지독한 외로움을 마주하여 몸서리쳤다. 주변의 위로도 때론 상처로 남고, 결혼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에는 밤새 후유증에 시달렸다. '딸이 살아 있었다면 결혼식도 올려주었을텐데' 생각했다. 딸 친구가 아이들을 데려오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 안아주고, 그들이 가고 나서는 또, '딸이 살아 있으면 애들도 낳아 데리고 왔을 텐데'하고 생각했다.

모든 게 딸과 연관되다 보니 점차 대인관계도 멀리하고 안으로만 파고들게 되더니, 어느 순간 나도 딸처럼 천장에 줄을 달아놓고 그 앞에서 있었다. 평소에는 잘 참다가도 생각이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성이

마비되고 제어되지 않아, 순간순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면 ‘남은 가족도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며 버텼다. 시간이 좀 지나면 건널 만하다고 하지만 상처는 그대로였고 그저 건디는 척하며 살았다. 정신이 돌아오기까지는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야 했었는지... 다행히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아우가 있어 큰 힘이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유럽에 갈 일이 생겨 도망치듯 그곳으로 갔다. 여러 나라를 돌아보았다. 로마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의 피에타상이 꼭 보고 싶어 몇 시간을 기다려 그 조각상을 보았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성모님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한참을 보고 있다가 돌아왔다.

귀국할 날이 되어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로비에 피아노가 있어 여행객들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동양인 아가씨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해 말없이 평평 울었다.

평상시 한국에서는 남자이기에, 가장이기에 눈물이 나도 참고 견뎌야 하는데 남자이기 전에, 가장이기 전에, 삶의 무게에 아파하는 그저 인간이고 싶었던 것 같다. 이곳은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기에 실컷 울고 나니 오랜만에 웅어리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였다. 이후로도 참고만 있으면 병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이제는 힘들 때는 혼자 차 안에서 실컷 울기도 한다.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로 인해 남은 가족의 이름으로 결단 있게 말하고 싶다.

자살은 한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같이 무너지니, 생각을 한 번만 더해 멈춰야 한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언젠가는 지나가는데, 죽음으로 삶을 마치면 그 고통이 없어지리라 생각해도 그 고통은 남아 있는 가족들을 더욱 괴롭게 하니 자살은 하지 말라고 간곡히 피눈물로 말한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살아야 한다고!

어느 날 꿈속에 딸이 예쁜 한복을 입고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딸아,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한 것 용서해...”
딸은 나를 끌어안고 다독거리려주었다.
“아빠, 많이 힘들었지? 난 괜찮아...”
다독다독, 다독다독, 우리는 서로 껴안고 다독거리며 눈물 흘렸다.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간다. 안사람은 다행히 건강이 좋아지고 있으며 아들도 군 복무 잘하고 있다. 나도 남아 있는 가족이 있기에 열심히 일하며, 잠시 미뤄놓았던 내 삶과 꿈도 다시 챙기며 앞으로 나아가며 살고 있다. 가족들도 서로 다독거리고 더 품어주며 배려와 깊은 사랑으로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 중이다.

이제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 슬퍼한다고만 해서 가버린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삶도 잘 살아야 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므로 죄책감, 자책감, 책임감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

유가족 권리장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희망을 느낄 권리와 새롭게 시작할 권리가 있다. 나를 떠난 가족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기에 나를 떠난 가족이 이제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버린 딸이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마저도 고맙고, 같이 있어 행복했던 것도 고맙고, 함께 했던 추억이 있어 고맙고 아름다웠다. 사랑한다, 우리 딸!

햇살에 은행잎을 치우니 다시 파란 하늘이 보인다. 그 하늘에 민들레 꽃씨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내년에도 우리 집 뜰엔 딸 닮은 노란 민들레들이 웃으며 다시 활짝 피어나겠지. 민들레 꽃씨 하늘 날다 다시 볼 희망과 그리움으로.

현장 속으로

명동성당 나눔 1번지, 가톨릭회관 신관에서 만나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가톨릭회관 신관 지하에
‘가톨릭 생명나눔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톨릭정보문화센터’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창 더울 때, 이곳에 들러 쉬면서 가톨릭교회에 관해
알아보고 신앙의 실천으로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



④ 서울의 성지순례길을 한 눈에 알아보세요

가톨릭정보문화센터가 추천하는
성지순례길을 확인해 보세요. 서울 내에도
많은 순교지가 있다는 사실과, 이를 둘러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코스를 알 수 있습니다.



⑤ 찰칵! 교황님과의 기념사진을 남기세요

안쪽 벽면에는 바티칸을 배경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교황님이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네요. 교황님과의
즐거운 한 때를 남겨보세요.

① 장기 및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해 물어보세요

센터 안쪽에 임상병리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기증뿐만 아니라 조혈모세포기증, 헌혈, 제대혈기증 안내 등 생명나눔운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과 등록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냥 쉬세요

중앙에 있는 쉼터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천주교 역사에 관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광장 출구 근처라 만남의 장소로도 유용합니다.

③ 가톨릭교회 소식과 활동을 알아보세요

센터 한쪽에는 청소년, 사회사목 등 교회의 각 기관이 하는 일과 이벤트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이나 책자가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쓱쓱 챙겨보세요.



가톨릭생명나눔센터 이용안내

• 운영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월, 화요일은 오후 6시 30분
까지), 법정공휴일 외 연중무휴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가톨릭회관 신관 지하 116호

• 전화번호

1599-3042(생명살이)

※ 가톨릭생명나눔센터에서는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를 모집하며, 방문상담 및 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을 신청하세요

특별한 신앙고백을 한 날, 미사를 마치고 이곳으로 와보는 건 어떨까요? 장기기증이나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해 알고 기증 의사도 있지만 막상 등록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기증신청이 어려웠다면, 이곳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⑦ 시원하게, 센터 주변도 구경해보세요

센터가 위치한 1898광장에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서점과 갤러리, 리사이클링 공방 래코드와 명동성당 브랜드 상점인 1898+ Shop도 구경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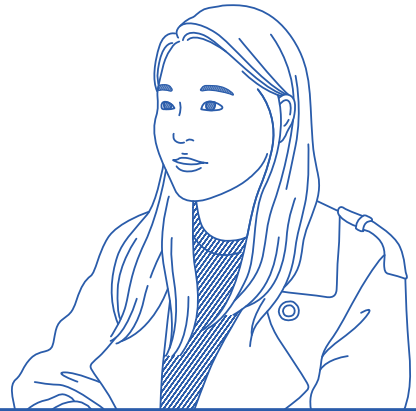


봉사와 나눔의 삶을 꿈꾸다

김근아^{아나스타시아} 씨
2012년 띠앗누리 봉사단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월간 가톨릭 비타콘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캠페인을 펼칩니다.
직장에서 또는 소소한 일상에서 '성체성사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본 콘텐츠는 가톨릭 비타콘 2017년 6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체험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마음 속 깊이
감동을 받으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인생관, 가치관, 행복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근아(아나스타시아, 26) 씨도 가치
있는 체험으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2012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해외봉사·지구시민
프로그램인 '띠앗누리'에 참가한 이후,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가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도 물질적인 면에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띠앗누리’에 참여해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
‘후회하는 것 또한 인생의 한 과정’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관한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띠앗누리에 참여한 이후 봉사와 나눔에 관심이 생겨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했고, 띠앗누리 놀이터 준비위원회,
지구시민서포터즈 활동까지 참여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왔고 꿈꾸는 직장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띠앗누리의 어떤 점이 근아씨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한
것일까요. ‘형제자매 사이의 우애 있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 ‘띠앗누리’는 국경과 종교, 인종을 초월해 세계의
가난한 이웃들과 친교를 나누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2004년부터 매년 참가자를 모집해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등에서의 봉사뿐 아니라 청년,
빈곤, 인권, 환경이라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분야별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견학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아씨는 현지인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점을 띠앗누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계속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기에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삶을 체험하고 나니
저에게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아씨가 꿈꾸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는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가치임을 봉사와 나눔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은 받기만 해서도 주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줘야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기고 받아야
또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늘 사랑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함께 할 때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하며
밝게 웃는 김근아 아나스타시아 씨. 그녀는 성체성사의
삶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

나눔으로 성장하는 가정을 꿈꾸며

황종익^{이시돌},
조혜연^{세실리아} 부부



※ 본 콘텐츠는 가톨릭 비타콘 2017년 7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면 왜 마음이 충만해질까요. 작은 것이라 해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나면 언제나 마음 한 편이 따뜻해짐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 사랑을 완성하셨듯이 그렇게 나눠야만 행복해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나봅니다. 이번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사명을 완성해나가고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황종익(이시돌), 조혜연(세실리아) 부부.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잘 키우라고 맡기셨다는 인혜(발레리아, 10), 인지(스텔라, 8), 인서(엘리사벳, 6), 인나(프란체스카, 3)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 엄마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요즘 시대에 아이 4명을 키운다는 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신경 쓰면 힘든 일보다 기쁜 일과 행복한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합니다.

이들 부부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생애첫기부’에 아이들의 이름으로 총 9번의 기부를 했습니다. 2009년 첫째 인혜의 돌기부를 시작으로 동생들도 돌기부와 생일 기부 등을 이어왔습니다. 아이 4명을 키우면서 돈을 써야할 곳도, 써야할 일도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이 4명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충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의 유치원 졸업사진, 가방 비용 등 꼭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아껴서 기부했습니다.”

“그 비용이 없다고 우리가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비가 없어 도움이 절실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지구촌 빈곤국가의 아이들에게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이들도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잠깐 참으면 도움이 절실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나눔의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기부에 참여하다보니 이제는 TV에 어려운 친구들이 나오면 도와줘야겠다는 말도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나눔에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 큰 금액을 기부하면 부담감이 생겨 이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만 갖는다면 생활 속에서 분명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만 절약해서 기부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기부금을 전하러 명동에 있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찾을 때는 매번 가족여행을 가는 느낌이에요. 전달식을 하며 가족사진도 찍어 무료로 액자로 제작해 주세요. 무엇보다 기부하고 나면 마음이 참 충만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이번 기회에 내 아이의 생일을 ‘내 아이 생애 첫 기부일’로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가족만의 특별한 기념일도 되고 가족과 나눔도 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

나눔가게·나눔기업

사회적기업 대신 나눔이 넘치는 사회적가게로

이번에 소개할 나눔가게는
공항철도 계양역 인근에
위치한 263호점 카페
로즈스텔라입니다. 예쁜 카페
이름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하고 꽃향기가 물씬나는
플라워&갤러리 카페입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263호점 카페 로즈스텔라정원

대표 신세림 스텔라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로 143번길 12(다남동)

문의 032)544-3624

blog.naver.com/likeselim

우선 카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신세림 스텔라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가톨릭 신자이고, 저희 카페인 로즈스텔라정원은 엄마와 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플라워&갤러리 카페입니다. 스텔라는 제 세례명에서 따왔고, 엄마가 장미를 좋아하셔서 '로즈스텔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 20여 년 간 서울에서 플로리스트로 활동하시던 엄마가 전원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이곳으로 이사와서 정원도 가꾸고 작품활동도 하며 지내셨습니다. 당시 다른 회사를 다니던 저는, 엄마와 함께 이곳에서 카페를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그림들과 그릇, 찻잔 등도 모두 엄마의 작품이고, 카페 입구, 정원, 테이블의 꽃들까지 모두 아버지, 엄마와 함께 직접 가꾸고 있습니다. '바람결에 꽃잎이 흩어지는 카페'라는



이름처럼 계절따라 꽃들이 피고 지는,
도시 속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년에 본부로 처음 기부를 해주셨는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었나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기업의 이윤을 사회로 되돌리는 구조를
실현해보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일과 그
이윤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사회 환원의 부분은 전문적인
활동들을 하는 건전한 조직이나 단체에
기부해서 사회서비스가 잘 제공되도록
돕는 쪽으로 실현하자고 생각했어요.
그 즈음 지인을 통해 한마음한몸
운동본부를 소개받아 정기후원을
시작했고, 작년에 카페를 오픈하면서
나눔가게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기부를 해주시고 계신데,
혹시 특별히 지원을 바라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현재 저는 자살예방사업 분야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국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마음이 쓰입니다. 국내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을 통해 기부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일에는
관심이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를 통해서 자살예방사업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페 오픈 1주년을 맞아 또
큰 금액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기부를 해주셨나요?**

카페는 작년 4월 15일에 오픈했는데,
가게를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본부에 정기후원을
등록했었고요. 좋은 일이나 기념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부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오픈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카페를 찾아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판매금
전액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취지를 미리
블로그와 카페를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알려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카페 마당에 조그맣게 열었던
벼룩시장의 물건들 역시 수익금을
모두 기부한다고 하니 손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구매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액은
본부 뿐 아니라 여러 단체에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대표님은 나눔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눔은 '거저 받아온 많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저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받으며 지내온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특별히
모나거나 힘든 일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누군가에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요. 그래서 겨울이면 연탄나눔
봉사도 하고, 여러 곳에 기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나눔가게· 나눔기업이란?



나눔가게·기업은 본부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별기부 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본부에 예비
나눔가게·기업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면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나눔가게·기업 현판을
보내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아주신
기부금은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긴급구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본부의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166291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생애첫기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기념일에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프리카·아시아의 빈곤한 친구들과 국내의 백혈병·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나눔입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김나율, 김해율



김리에 율리아

생애첫기부

강도윤 마티아 2013.05.18생 父 감명부 母 김보경 | **강유찬 레오** 2016.05.20생 父 감명부 母 김보경 | **강유우 안드레아** 2016.03.07생 父 강준열 母 신혜진 | **강인성** 2017.01.01생 父 강성일 母 정해나 | **고지후 베네딕토** 2016.05.04생 父 고승지 母 백지연 | **권아영 에스텔** 2016.02.26생 父 권민혁 母 김아람 | **권유한** 2016.03.14생 父 권상윤 母 이희원 | **권이준** 2016.06.01생 父 권순형 母 김수연 | **권하윤** 2016.05.20생 父 권기홍 母 김서형 | **권호연 사무엘라** 2016.07.19생 父 권대규 母 박경민 | **김강민 에로니모** 2016.03.09생 父 김동영 母 편아름 | **김다은** 2016.04.05생 父 김태현 母 박나영 | **김다인** 2017.02.05생 父 김영삼 母 이재은 | **김대환** 2014.01.02생 父 김영국 母 정필경 | **김동규 루카** 2017.01.26생 父 빈센트 드를름 母 김태희 | **김동욱** 2013.09.09생 父 김태현 母 박나영 | **김문도** 2016.05.10생 父 김영국 母 정필경 | **김민교 보나** 2016.05.12생 父 김건철 母 문지현 | **김비성** 2017.02.06생 父 김광모 母 김나윤 | **김서인** 2016.03.23생 父 김성진 母 이해란 | **김서현** 2016.03.21생 父 김상철 母 이보림 | **김소을 세례자요한** 父 김우진 母 김보람 | **김수호 요셉** 2016.03.15생 父 김효선 母 송화영 | **김시우 프란치스코** 2014.08.20생 父 김진욱 母 김경미 | **김아윤 에스텔** 2016.05.14생 父 김대희 母 조예림 | **김우림** 2016.04.05생 父 김형민 母 김혜란 | **김유안** 2017.03.20생 父 김호선 母 정우경 | **김은호 마리오** 2016.04.18생 父 김준우 母 소유진 | **김주호** 2016.05.19생 父 김승찬 母 권희경 | **김지원** 2017.01.11생 父 김민석 母 정시내 | **김지우 비비안나** 2016.03.28생 父 김주환 母 김민희 | **김지우 라파엘라** 2016.03.18생 父 김상준 母 김정영 | **김지연 세실리아** 2000.09.23생 父 김성락 母 박민정 | **김지호 스텔라** 2016.03.31생 父 김철홍 母 황인평 | **김진영** 2016.05.18생 父 김연수 母 권지예 | **김태은** 2016.03.26생 父 김준호 母 최진숙 | **김하준** 2016.04.14생 父 김상훈 母 김지은 | **김해나** 2016.04.20생 父 김희상 母 이수경 | **김해람 마더데레사** 2016.05.06생 父 김성훈 母 황하나 | **김해율** 2016.05.12생 父 김도현 母 노경선 | **나하윤** 2016.05.06생 父 나영식 母 손미혜 | **문가은 안젤라** 2016.01.13생 父 문승용 母 유지은 | **문수현 디오데오** 2016.08.20생 父 문종석 母 김영은 | **문주원 가브리엘** 2013.08.13생 父 문영삼 母 신유라 | **박단윤 미카엘** 2016.03.15생 父 박병철 母 김미영 | **박상하 사도요한** 2007.07.13생 父 박수홍 母 이희송 | **박시윤 한나** 2015.12.18생 父 박장출 母 한계영 | **박시은 에스텔** 2016.07.13생 父 박광호 母 임명희 | **박신우 미카엘** 2017.01.24생 父 박우진 母 김지나 | **박정빈** 2016.05.11생 父 박근식 母 설진화 | **박종현** 2007.04.13생 父 박지용 母 유혜선 | **박준희 바오로** 2016.06.07생 父 박종연 母 김정은 | **박지아 소피아** 2016.03.24생 父 박계형 母 김효진 | **서영은 미셀** 2004.10.07생 父 서정기 母 유경미 | **서지성** 2017.04.10생 父 서원주 母 정지혜 | **선루아** 2014.08.03생 父 선루트 母 김현욱 | **성태은** 2017.01.16생 父 성시준 母 채희주 | **손리안 사도요한** 2016.04.12생 父 손기명 母 김향희 | **손모은 가브리엘** 2016.07.12생 父 손경배 母 박은미 | **손지원** 2016.04.10생 父 손찬희 母 김민정 | **송도윤 라파엘** 2016.02.07생 父 송혁준 母 전소양 | **송선아** 2016.05.16생 父 송병주 母 강문희 | **송연아** 2016.04.09생 父 송민형 母 우희주 | **송해솔** 2016.05.18생 父 송병채 母 박미진 | **신연우 대건 안드레아** 2016.04.15생 父 신익수 母 박수지 | **신준희 프란치스코** 2013.01.06생 父 신동우 母 김경선 | **심연준** 2016.06.16생 父 심재원 母 김선주 | **안별** 2016.04.27생 父 안종훈 母 신동미 | **안태윤 안셀모** 2016.04.20생 父 안영진 母 김경진 | **안태진 저스틴** 2006.04.17생 父 안진호 母 조인영 | **엄은재 헬레나** 2017.02.08생 父 엄재용 母 박은진 | **엄한별** 2016.04.16생 父 엄주호 母 박은애 | **오서을 로즈마리** 2015.03.24생 父 오임경 母 고영심 | **오선우 요셉** 2016.03.24생 父 오세훈 母 송지혜 | **오수현** 2016.04.18생 父 오덕교 母 유나연 | **오승우** 2016.12.07생 父 오원근 母 우주현 | **오하윤** 2017.02.27생 父 오기열 母 이영비 | **유아연** 2017.03.24생 父 유동선 母 이은선 | **유소연 세실리아** 2016.04.14생 父 유여향 母 이민주 | **윤솔 노엘** 2016.01.13생 父 윤복수 母 송민경 | **윤인욱 라파엘** 2016.03.10생 父 윤지문 母 최세움 | **이다윤 그라시아** 2016.01.15생 父 이재욱 母 박수아 | **이도윤** 2016.04.19생 父 이준호 母 윤신교 | **이서준** 2014.04.10생 父 이창호 母 이현해 | **이서진** 2016.12.07생 父 이종수 母 변지이 | **이세나** 2016.05.16생 父 이상권 母 임혜영 | **이승후 아타나시오** 2016.05.02생 父 이찬희 母 채윤정 | **이시은** 2016.04.12생 父 이도현 母 정수연 | **이유진 스테파노** 2016.03.14생 父 이윤희 母 석민주 | **이윤솔** 2016.04.30생 父 이경환 母 박소현 | **이윤아** 2017.04.21생 父 이상현 母 박민정 | **이윤호 레오** 2016.03.21생 父 이선호 母 김규민 | **이재윤 노엘** 2013.03.29생 父 이승희 母 윤선애 | **이지찬** 2017.02.13생 父 이정민 母 남윤희 | **임보나 보나** 2016.04.10생 父 임수빈 母 박지혜 | **임에서 아네스** 2016.06.24생 父 임용철 母 서고은 | **임재민 베네딕토** 2015.04.21생 父 임정완 母 배수현 | **임재하 레오** 2016.11.10생 父 임민식 母 이승연 | **장성하** 2017.02.01생 父 장동원 母 최소정 | **장세영 아나스타시아** 2016.03.27생 父 장현우 母 양은지 | **장예준** 2016.06.22생 父 장대용 母 김민주 | **장은재** 2016.03.11생 父 장진향 母 임미연 | **장준호** 2016.05.22생 父 장민규 母 이도연 | **정민찬 토마스** 2016.05.04생 父 정경준 母 김미선 | **정시연 요안나** 2015.12.31생 父 정철우 母 권현아 | **정연우** 2016.04.26생 父 정승현 母 정문경 | **정하윤** 2016.06.20생 父 정정용 母 윤진경 | **조민하** 2016.03.28생 母 이명하 | **조승우 라파엘** 2012.11.20생 父 조인근 母 최경은 | **조예준** 2016.04.03생 父 조윤하 母 원지영 | **조한별** 2016.03.24생 父 조창호 母 이은경 | **조현조 프란치스코** 2017.01.17생 父 조강래 母 김다윤 | **지민경 소피아** 2016.05.13생 父 지완일 母 최부형 | **진익준 프란치스코** 2016.01.23생 父 진민호 母 김문주 | **채수연** 2016.03.13생 父 채윤 母 정해인 | **최서안** 2016.02.28생 父 최완섭 母 김현희 | **최주형 에릭** 2016.05.07생 父 최영진 母 김하늘 | **하이안** 2016.06.02생 父 하성민 母 김정은 | **하정우** 2016.03.09생 父 하은뜸 母 전선하 | **한아인** 2016.12.07생 父 한승수 母 이은경 | **한지민 레아** 2016.03.20생 父 한승훈 母 김민경 | **한지안** 2016.06.17생 父 한성혁 母 배지영 | **홍대경** 2016.03.23생 父 홍현철 母 박소영 | **황재연** 2016.05.03생 父 황욱 母 박민선 | **황지우 로사리아** 2016.12.07생 父 황영선 母 김하나 | **황지호 마리스텔라** 2016.03.01생 父 황덕규 母 박민영

두 번째 기부

강우정 가브리엘라 2016.03.08생 父 강만보 母 채원영 | **강희태 마르코** 2015.04.25생 父 강경국 母 고유리 | **기성록 라파엘** 2016.09.19생 父 기석권 母 박주원 | **김단아** 2014.03.17생 父 김병철 母 구인희 | **김담울** 2015.05.13생 父 김광수 母 강도연 | **김도현 세례자요한** 2007.06.12생 父 김수영 母 손지민 | **김도훈** 2015.03.02생 父 김홍중 母 강지영 | **김연서** 2015.05.31생 父 김원종 母 함은혜 | **김지석 요셉** 1997.11.14생 父 김성락 母 박민정 | **김지은** 2016.05.19생 父 김용기 母 박유리 | **김태연 아델리나** 2014.10.28생 父 김성준 母 민숙경 | **남연우** 2011.09.06생 父 남덕진 母 박대하 | **문라은** 2016.03.24생 父 문원우 母 정미래 | **민소은** 2015.05.11생 父 민상현 母 신서현 | **박승현 스텔라** 2016.05.27생 父 박정주 母 나연 | **박지호 바오로** 2016.04.05생 父 박영준 母 홍상희 | **배서연** 2016.03.18생 父 배진우 母 김진영 | **백유안** 2015.05.29생 父 백상현 母 김보라 | **손준혁 율리오** 2015.04.20생 父 손동진 母 김보림 | **송우한** 2013.07.08생 父 송민형 母 우희주 | **오윤성 토마스 아퀴나스** 2015.01.30생 父 오항석 母 이은희 | **원승묵** 2015.04.30생 父 원유식 母 김은영 | **유이현** 2014.04.06생 父 유재민 母 정별 | **윤성준 요셉** 2016.04.04생 父 윤정민 母 이혜원 | **이가현 노엘라** 2015.04.21생 父 이순규 母 유승연 | **이래은 가브리엘** 2015.04.03생 父 이준우 母 이지영 | **이서안 치틸로** 2016.04.28생 父 이한샘 母 허인선 | **이수현 프란치스코** 2015.03.10생 父 이우상 母 박현진 | **이시원** 2016.12.21생 父 이경민 母 안효연 | **이아윤 벨라멧타** 2015.04.16생 父 이인열 母 이선미 | **이재열 빈첸시오** 2015.04.14생 父 이대희 母 이기쁨 | **이지호** 2015.05.29생 父 이기재 母 김정혜 | **이충현** 2014.02.07생 父 이성표 母 이주영 | **이한성 클라레오** 2016.06.04



박시윤 하나



정하윤 로사, 정하준 요셉



조준재 알로이시오



진여운

생父 이장훈 母 최현정 | **임예원** 2015.04.18생 父 임상훈 母 김고은 | **정규원 라파엘라** 2015.03.24생 父 정광래 母 예소희 | **지서안** 2015.04.01생 父 지대현 母 이기랑 | **지준호 사도요한** 2005.04.27생 父 지승환 母 장미선 | **차건호 레오** 2015.03.02생 父 차동열 母 송정하 | **최연서 베로니카** 2015.02.16생 父 최동환 母 이은정 | **최은준 야고보** 2015.05.16생 父 최인환 母 김선영 | **한종률 천주의 성요한** 2015.03.09생 父 한용규 母 김수연

세 번째 기부

강윤우 바오로 2014.01.17생 父 강영관 母 김현주 | **권성은 다니엘** 2014.03.05생 父 권정근 母 김은혜 | **김나을** 2014.02.06생 父 김도현 母 노경선 | **김다솜 연희마리아** 2014.04.14생 父 김영부 母 송해련 | **김수호 도미니코** 2013.11.22생 父 김철홍 母 황인평 | **김지유 올리아** 2015.05.22생 父 김정현 母 정해진 | **김하은** 2014.04.03생 父 김한중 母 이사슴 | **김효근 프란치스코** 2014.04.15생 父 김광연 母 이지은 | **나윤서 에밀리아** 2014.03.04생 父 나상오 母 구상희 | **문서현 프란치스코** 2014.07.22생 父 문종석 母 김영은 | **범지우 로사** 2014.05.02생 父 범지현 母 고준경 | **송다겸** 2014.04.24생 父 송원영 母 영소형 | **유시현 바르나바** 2014.06.10생 父 유대환 母 손해민 | **유태운 페트릭** 2014.03.15생 父 유위성 母 장영 | **윤지원 스텔라** 2014.05.20생 父 윤민구 母 김현정 | **이서준** 2014.01.17생 父 이주희 母 장윤희 | **이유준 다니엘** 2014.03.12생 父 이찬희 母 채윤정 | **정연아** 2014.02.25생 父 정대훈 母 김은선 | **정하준 요셉** 2014.09.26생 父 정영춘 母 좌상민 | **조영후 라파엘** 2012.05.19생 父 조진용 母 김희선 | **조에서** 2013.04.22생 父 조광재 母 김미선 | **한데레사 데레사** 2009.03.22생 父 피재환 母 한소진 | **홍지원 요한** 2014.04.21생 父 홍성철 母 변정연

네 번째 기부

권민을 가브리엘 2016.01.31생 父 권태영 母 윤세진 | **김대용 치칠로** 2004.02.15생 父 김기태 母 최서윤 | **김동욱** 2013.03.02생 父 김봉재 母 장은경 | **김서을** 2013.04.03생 父 김선재 母 최현정 | **김예은 리디아** 2012.10.26생 父 김성준 母 민숙경 | **김은우 다니엘라** 2013.03.14생 父 김준우 母 소유진 | **김정원 미카엘라** 2008.05.28생 父 김형석 母 김선경 | **김주원 프란치스코** 2013.03.30생 父 김동은 母 오지정 | **김효주 아녜스** 2002.04.29생 父 김요한 母 이현화 | **박대림 다미안** 2015.08.10생 父 박정훈 母 최형빈 | **박신우 바르나바** 2013.01.11생 父 박영준 母 안영현 | **박은우 안셀모** 2010.04.22생 父 박영준 母 안영현 | **박하윤 일루미나** 2013.03.08생 父 박찬익 母 하영재 | **심세형 안드레아** 2012.06.19생 父 심재윤 母 이근정 | **심예원** 2014.06.02생 父 심상우 母 손지현 | **오하정 카타리나** 2012.05.03생 父 오택문 母 은현정 | **윤진우 라파엘** 2013.05.28생 父 윤승배 母 최문형 | **이리원** 2014.05.14생 父 이민우 母 하윤선 | **이문정** 2007.05.24생 父 이준수 母 이상은 | **정우혁** 2013.02.27생 父 정성용 母 백수정 | **조윤재 알로이시오** 2014.03.12생 父 조현진 母 조효진 | **주하은 클로틸다** 2014.02.13생 父 정주호 母 김동희 | **진여운** 2013.04.06생 父 진동섭 母 문아미 | **최아윤 에스텔** 2012.07.02생 父 최인환 母 김선영 | **한석현 알렉산데르** 2013.08.11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 **한정현 대건안드레아** 2011.08.20생 父 한현선 母 서가원 | **황인혜 발레리아** 2008.04.26생 父 황종익 母 조혜연

다섯 번째 기부

김나을 마리스텔라 2012.05.23생 父 김동진 母 황수현 | **김보민 보나** 2012.05.03생 父 김태현 母 박정미 | **김정원 미카엘라** 2008.05.28생 父 김형석 母 김선경 | **김준서 라파엘** 2012.02.18생 父 김종문 母 정희정 | **박설아** 2012.04.24생 父 박세현 母 손은진 | **박소을 요안나** 2013.02.26생 父 박광진 母 박봉정 | **박시우 요셉** 2012.04.10생 父 박정호 母 임미혜 | **박지을** 2012.03.06생 父 박형석 母 임경화 | **심우형 다니엘** 2009.05.15생 父 심재윤 母 이근정 | **이한결 리노** 2012.05.29생 父 이승학 母 김윤경 | **정하윤 로사** 2012.05.05생 父 정영춘 母 좌상민 | **홍상현** 2013.05.26생 父 홍재준 母 정지영

여섯 번째 기부

강서윤 스콜라스티카 2004.06.25생 父 강승렬 母 문희선 | **강서진 요안나** 1994.04.29생 父 강승렬 母 문희선 | **김리에 올리아** 2011.05.23생 父 김선준 母 장진영 | **김예은 가타리나** 2012.04.28생 父 김남호 母 오해순 | **김정원 미카엘라** 2008.05.28생 父 김형석 母 김선경 | **정수아** 2011.04.29생 父 정대훈 母 김은선

감사 기부

교사선후배모임 영애 만남1주년 기념 | **김태영 가브리엘** 장학금 수령 기념 | **로즈스텔라정원** 1주년 기념 | **민지혜 로사** 이직 기념 | **박성준 불리까르보 & 김동연 보나** 보금자리 마련 기념 | **서재환 루카** 해군 장교 임관 기념 | **성민석 베드로 & 최다혜 베로니카** 감사 현금 | **안희보 마리아나** 회갑 기념 | **이상수 교장선생님** | **채희주 세실리아** 첫월급 기념 | **푸른샘어린이** | **이집 스승의날** 기념 | **한제희 요안나 프란치스카** 이사 기념 | **허의남 교수님** 스승의날 기념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권혁진 니콜라오 & 허보람 지나 결혼1주년 | **김상석 아나시오 & 김진희 세실리아** 결혼20주년 | **김선영 엘리사벳** 배우자 생일 기념 | **김선익 바오로 & 정옥수 크리스티나** 결혼35주년 | **김홍중 & 최지향 미카엘라** 결혼14주년 | **문종석 마카엘 & 김영은 엘리사벳** 결혼3주년 | **박성모 & 김지희 루시아** 결혼 기념 | **박우진 시몬 & 김지나 레지나** 결혼2주년 | **오제영 & 김은주** 결혼5주년 | **이유범 미카엘 & 주희주 미카엘라** 결혼기념일 | **이주홍 요한 바오로 2세 & 민승이 엠마** 결혼3주년 | **이찬희 바오로 & 채윤정 루시아** 결혼4주년 | **조성호 & 김정은** 미카엘라 결혼1주년 | **조훈 다니엘 & 나혜영 마리아** 결혼3주년

일곱 번째 기부

고믿음 2015.06.11생 母 고영미

열세 번째 기부

이승유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열네 번째 기부

이승유 콘스탄티노 2014.04.12생 父 이종수 母 박우정

생일 기부

이유진 로사리아 1978.05.01생
최진일 베다 1972.05.12생

아름다운 커플의 기부

허일희 루카 & 박경순 안젤라 4주년 기념

멋진 팬들의 기부

임슬옹 생일기념 1987.05.11생

입학 기부

이다은 릴리안 2013.07.10생 父 Simon Alexander 母 이당 | **정환주 베네딕토** 2010.05.06생 父 정희삼 母 이영경

고인을 기억하며

故 김희창 | **故 서정훈** | **故 한기홍 미카엘** | **故 허중 야고보**

한마음한몸 새 소식

1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모집 캠페인



본부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생사목부 및 가톨릭생명운동전국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혈 모세포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희망자 모집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18개 대학, 2개 성당에서 총 21회 캠페인을 진행하여 1,382명이 신규 희망등록하였으며, 이 외에도 명동 가톨릭생명나눔센터에 37명이 직접 방문하여 희망등록하였습니다.

2 부천성모병원, 자살예방캠페인 개최



6월 22일, 부천성모병원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내원객과 환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족석 가족사진을 촬영해 액자에 담아 증정하는 이벤트와 '마음을 위로하는 책갈피' 나눔이 이뤄졌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생명과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자살자, 자살유가족, 자살위기자를 위한 미사 개최



지난 4월 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에서 '자살한 이들과 유가족, 자살 위기자'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50여 명의 신자와 일반인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미사를 집전한 오대일 신부는 강론을 통해 "자살문제 극복은 하느님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슬픔·고통이 있더라도 하느님 자비를 굳게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연민 안에서 서로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4 청소년 지구시민교육



본부는 화계중학교(4월 4일, 5월 16일, 5월 30일, 6월 27일) 안법고등학교(4월 5일, 5월 10일, 6월 14일), 경화여자고등학교(5월 2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 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빈곤, 인권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5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기금협력사업 모니터링



본부는 네팔(4월 24일~29일), 케냐 및 부룬디(5월 16일~27일)의 기금협력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현장에 본부가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본부는 현지기관과 협력을 통해 빈곤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기 ▶ p.3

6 장기기증 캠페인



본부는 지난 4~6월 동안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방배동성당, 포이동성당과 수원교구 상록수성당, 송현성당 및 과천시 보건소, 동작구보건소, 부천성모병원 그리고 호남대를 비롯한 16개 대학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전개하여 장기기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고 총 1,331명의 장기기증 희망자를 모집하였습니다.

7 환우지원사업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2017. 4~6. | 단위: 만 원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고OO	좌측 고관절부 기타 골수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300
김OO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도비만, 우울증	성바오로병원	300
김OO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국립암센터	1,000
김OO	뇌종양	국립암센터	1,000
김OO	폐암	국립암센터	900
김OO	치아상실, 2형당뇨, 폐렴, 우울증	부천성모병원	1,000
김OO	특발성 폐섬유증	세브란스병원	800
백OO	대동맥판막협착증, 위암	고려대안암병원	900
신OO	간경변증, 간이식	고려대안암병원	1,000
이OO	버킷리스트종	국립암센터	1,000
이OO	홍선암	일산백병원	300
장OO	간부전, 폐색전증급성신부전, 병원성폐렴	인하대병원	900
장OO	전-B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국립암센터	1,000
정OO	크라베병	서울대병원	1,000
최OO	우 상완골 간부골절 간열상	부천성모병원	150

| SNS로 보는 나눔 이야기 |



좋아요 78개

just_lolllol 많은 금액은 못해도 마음을 보태며
키워나가야지 #결혼1주년기념 #후원하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백혈병난치병어린이후원
#남편사랑 #신혼부부그램 #벌써1년 #0528
#💕 #💖 #💗 #💞 #💓 #💟



좋아요 39개

1342415_lym 마티티안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모두 고생해주셔서 130명 학우의 소중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마티티아 #조혈모세포
#가천대학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안내

① 정기후원

지로자동이체(권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www.obos.or.kr)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소식지에 동봉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부로
보내주시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월 1회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지로납부

지로번호: 7522277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지로납부 횟수를 격월,
분기, 상하반기 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후원

계좌이체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은행 454-005324-13-001
국민은행 083-01-0309-453
신한은행 140-001-982286
KEB하나은행 061-22-03709-4
농협 386-01-015833

신용카드, 휴대폰

www.obos.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

ARS 후원

060-700-1117
위 ARS 번호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당
3,000원이 사용하시는 전화요금에서
결제됩니다.

문의 02)727-2285 | 02)727-2288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